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2~3천만 원 지원, 2024년 2월 17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월)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하였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하였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단기 지원방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 및 지급기준 완화, 어선·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중장기 지원방안) 감척 및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 등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1~'23) 내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용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용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용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2월 18일(월)부터 내년 2월 17일(토)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하 (044-200-5431)

